

한반도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제언

림 관 현(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차 례

- I. 서언
- II. 통일운동에의 참여
- III. 인권운동과 인도주의적 활동 참여

I. 서 언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해외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통일한국을 원하는가하는 문제를 국내 동포의 그것과 대비하여 특이한 점을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들 해외동포들은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내 동포들 못지않게 남북통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인도적 도움에 깊은 관심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외 동포라 하여 국내동포들의 조국관이나 대북관이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한반도-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서를 구지 두 개로 나누어 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동포들은 제3자적 거리에서 남북문제를 보는 특성이 있고 남북당사자에게 현실적 투쟁의 대상인 통일문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애잔한 정서적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동포 중 중국의 동북3성을 이루는 만주지역 거주 한민족에게는 민족사적 의미가 가미될 것이며 동맹국 전우로 편들어 싸웠던 미국에 사는 재미동포들에게는 북한정권에 대한 대립감이 더 뜨겁게 작용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보던

남북 동포들은 우리들의 동족으로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해야한다는 동포애로 감싸기를 원하며 남쪽이나 북쪽이 잘할 때는 더 기쁘고 자랑스러움으로 벅차며, 못할 때는 슬픔과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동포들에겐 조국의 실상이나 거주국에 비추어진 조국의 모습이 내일과 같이 다가서게 되는데 그런 느낌은 특히 오늘날 남한의 국력신장과 정비례하여 발전하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의 진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남북한을 모두 조국으로 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동포들에게는 어느 한 쪽의 발전만으로 흥겨워하고 다른 쪽의 치부가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쪽의 평화로운 번영을 함께 바랄 수밖에 없다는 숙명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외동포가 조국통일에 기여할 부분은 다양할 것인바 이하 몇 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통일운동에의 참여

재외동포, 즉 해외이주 동포들은 먼저 외국이라는 낯선 고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극한적 투쟁에서 이겨나야 겨우 자립하게 되고, 자립과 안정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주위를 돌아보고 조국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내가 한국인인 나 개인의 인격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내가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중압감에 사로 잡혀, 일 거수 일 투족에 많은 압박감 내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되고 독립투사 같이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투사가 되며, 뒤 돌아 보지 않고,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 전진만하는 용감하고 부지런 한 거주지의 훌륭한 시민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까달게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을 떠난 가난하고 높은 공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계약노동자들인 첫 이민자들도 학교, 교회와 동지회를 만

들고 그들과 그 후손들은 모두 조국광복을 위한 빛나는 투쟁과 봉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6.25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공산당의 남한 적화를 위한 악몽 같은 세월을 경험했거나 전해들은 미주 동포들은 공산주의 치하의 중국 동포나 직접 전쟁의 체험이 없었던 재일동포와는 달리, 극단적으로 공산주의를 혐오하게 되고 조국의 자유를 지켜 주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전쟁터로 자원하고, 전후 복구 기에는 조국을 물질적으로 돕고 지식으로 돕는 일들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베를린 장벽이 문어지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에 차있던 재미동포들은 통일보다 먼저 찾아 온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 소식에 가슴아파하며 북한동포 돕기 운동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김정일 정권은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과, 남한의 청년 학도들을 현혹케 하여 한총련 계열의 주사파운동으로 남한을 분열시키고, 조총련을 비롯해 캐나다에 북한세력을 침투시키고 미국에까지 재외동포 연합이라는 친북-반 남한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일동포의 북송과 중공의 시장경제도입으로, 못사는 북한, 자유 없는 수용소인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서 북한의 선전 선동이 허구임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신뢰가 살아져가게 되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통일 운동의 전단계로서 북한을 돕고, 기독교를 선교하고, 북한에 농업기술, 과학교육, 의료지원 등을 펼쳐서 남한정부가 구현하려던 신뢰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도안스님의 국수공장운영, 기독교계의 빵공장 운영, 김진경 장로의 과학기술대 운영, 린턴박사와 함께하는 의료지원, 옥수수개발농업지원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연구하고 추진전략을 연구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기해야 할 것은 미국 내, 친북 미국인 친북인사도 적지 않아 부루스 커밍스 같은 평화봉사단 출신 얼치기 지한파를 내세우는 친북좌파들의 활동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한 미국 내 한인 친북동포들의

개인적 또는 단체적 활동을 견제하는 노력이 상당히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통일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북한식 남북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남한의 경제적·정치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보편화되었음으로 남한을 혈통하는 여론주도인사들의 언동이나 칼럼 등에 날카로운 비판으로 맞서며, 좌파단체의 60년간 변함없는 통일논리를 강력하게 비판하여 동포사회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 봄, 두 번에 걸쳐 친북좌파단체인 동포연합과 6·15공동성명추진위라는 단체가 시카고에서 공동주최한 통일강연회를 재향군인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우파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지 피켓을 들고 투쟁한 것도 하나의 자유 민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활동으로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인권운동과 인도주의적 활동 참여

미국은 전국 이래 기독교정신의 전파와 자유민주주의의 보급실현에 소극적, 적극적 노력을 경주했으며 세계 제2차 대전 후 인권보호와 인도주의 실현에 세계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왔습니다. 미국의 국력의 축소라기보다는 다분히 미국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적 세계평등주의로 미국의 지도적 위치가 축소되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지도력을 포기하는 한 전체주의, 획일주의, 국가사회주의 등 독재, 폭력집단의 팽창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알카에다와 탈레반 같은 유일적 종교를 실천한다는 독재 폭력집단들이나 김정일 김정은의 수령유일사상으로 무장한 독재정부가 미국의 인권, 인도주의를 딛고 넘어서 정부폭력으로 이를 유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대사와 인권법을 제정, 북한의 인권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식량문제, 의료문제를 비롯하여 열악한 환경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고 있다고 만족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1년 9·11직후-

정확히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고 3,000명 정도의 전쟁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 10일이 지난 2001년 9월 21일 일리노이 출신 마크 커 의원의 주선으로 한인동포들을 대표한 한미시민연합대표단의 소명자료를 들고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한 후 10년이 되도록 아직도 같은 출발 선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다자주의, 평등주의 국제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보수정책의 신봉자들인 일부공화당 상원의원의 의의제기로 첫 번째 한국 혈통의 주한미국 대사 취임이 늦추어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한 내지 친한 파가 되리라 믿는 대사 내정자까지도 강력한 대북정책수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일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재미동포 이산가족 문제, 재중 탈북자문제, 북한 내 수용소 인권문제, 김정일이 돌보지 않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문제를 거주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인식시키어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조국, 빛나는 자유민주의, 선진화된 문명의 경제대국, 우리가 바라는 조국이 저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 금강산 일만 이천 봉, 남해 다도해, 제주의 한라산자락에 빛날 때, 우리 동포들 환한 웃음꽃이 무궁화로 피어 나도록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